

“AI 기술 활용해 랜섬웨어 공격 막아냈다” 행안부장관상

광주시, 기술력 돋보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선정... 타 지자체 확산 기대

광주시의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력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광주시는 개인정보와 디지털정보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보안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주관 지자체 전북 제외)가 제출한 정보화 우수사례 중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랜섬웨어 방어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해 사이버보안 기술력은 물론 타 지자체·기관 파괴 효과, 확장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급증하는 신·변종 랜섬웨어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계형 보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AI 기반 지능형 보안관리 시스템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한 46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보안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업무용 PC 데이터를 수집해 그룹화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도화했다. 실제 24종의 랜섬웨어를 활용한 모의공격 실증에서 탐지 정확도 98.2%를 달성했으며, 기존 보안장비로는 탐지하지 못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 7종까지 인공지능(AI)이 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스템 도입 효과도 뚜렷했다. 도입 전에는 사람이 직접 월평균 약 5000건의 보안업무를 처리했으나, 도입 후에는 월 1만 5000건 이상을 자동 분석·관제해 처리량이 3배 증가했다. 위협탐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소요시간도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다. 광주시는 현재 인공지능(AI) 보안관리 시스템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올해 8월 기준 악성코드 3575건, 서비스거부(DDoS) 1만4046건 등 총 10만 5807건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 100% 대응했다. 특히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는 사이버보안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운영에 대한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박관춘 기자

서구, 풍암동서 'Good-Buy' 야시장 개최

온리어린이공원, 먹거리·공연·AI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풍암동 가을밤을 환하게 밝힌다. 서구는 19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온리어린이공원에서 '풍암 야시장 굿바이마켓(Good-Buy Market)'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풍암동 주민자치회, 17개 골목상인회 등이 함께 준비한 풍암동의 대표적인 마을활동으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기획됐다.

야시장에는 치킨·피자·족발·전·분식·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 20곳을 포함해 후원 기업 팝업스토어, 바닷놀이터, 포토존,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서구는 AI 전문기업 '질프스튜디오'와 함께 풍암동 마을 캐릭터를 만드는 '퐁탈리안 브레인릿'과 나만의 AI 굿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를 진행한다.

또한 풍암동 주민자치회와 마을주민 등이 안전요원으로 참여해 주출입구와 차량 통행 구간을 관리하고 화



기·전기·조명 등 시설물에는 전담 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 주민 간 상생과 연대로 만들어진 풍암야시장은 '착한도시 서구'의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퐁탈리안 브레인릿'과 나만의 AI 굿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를 진행한다. 또한 풍암동 주민자치회와 마을주민 등이 안전요원으로 참여해 주출입구와 차량 통행 구간을 관리하고 화

/박석우 기자

전남도, 저출생 극복 성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생 극복 분야 대상 영예

전라남도는 18일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2분기 합계출산율도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기며 1위를 유지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국 최초로 출생기부금(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제한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전국 최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정책 효과로 2024년 전남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97명(5.1%)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06명(6.2%) 상승했다. 특히 2024년 결혼·출산 연령대(30~34세) 인구 순유출(54명)에도 불구하고 출생증가세를 보인 점은 외부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가 아닌 실제 전남 거주자의 출산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문가들은 1990년대생이 결혼 적령기가 된 향후 10년이 우리나라 출생을 반등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전남도는 적극적인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출생률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 '바쁘다 바빠'

에너지 절약 캠페인·정책사업 홍보 등 맹활약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18명을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로 양성했다.

이들은 곧바로 일상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에너지 인식전환 실천가다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개문 냉방 영업 금지 및 실내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미사용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 진월동 푸른길 공원과 백운광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청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기후 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설치 사업 등 정책사업 알람이 역할도 도맡아 진행했다.

이와 함께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기후 위기 대응반과 태양 에너지반, 수소 에너지 반으로 구성된 그룹 스터디를 결성, 3차에 걸쳐 에너지 전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석초교와 유안초교, 대성초교, 농성초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무대에 오른 뒤 올해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관내 4개 학교 초등학생 850명은 예코백 만들기, 태양열 독립형 태양광 만들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체험하며 기후 위기 및 에너지 문제에 관한 것을 학습한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인식전환 주민 활동가의 꾸준한 활동 덕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활동 동참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는 주민들도 상당수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구청 주관 전문가 교육과정을 거쳐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로 거듭난 주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맹활약하고 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 인식전환 활동가는 관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전환 문화를 알리면서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증가를 위한 기반 조성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생활 속 실천가들이다.

남구는 올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공개 모집한 뒤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시행,

'광주동구랑페이' 22일부터 발행, 18% 할인

1인당 50만 원 한도, 골목상권 활력 기대

혜택을 주고자 18%로 인상함으로써 50만 원권 선불카드를 41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광주동구랑페이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할인을 확대

가 지역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도 광주동구랑페이 사용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과 유입된 신규 고객이 단골로 이어지는 홍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네 식당, 미용실, 카페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활

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동구랑페이는 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할인을 상향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구랑페이 가맹점은 수시로 모집 중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철수 기자

